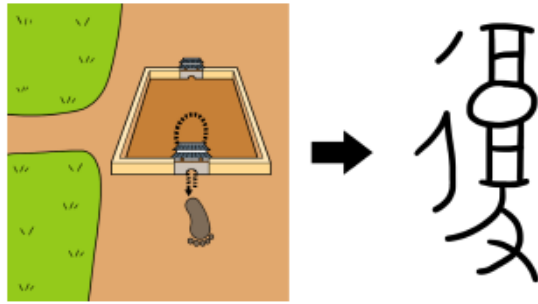


4(2)
-
81

회의문자①



復

회복할
복 |
다시 부:

復자는 '돌아오다'나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復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復(갈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復자는 성(城)을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아가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復자 이미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彳자를 더한 復자는 '(길을)되돌아오다'라는 뜻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復자는 후에 '회복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는데, 몸이 아팠다가 낫는 것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復

금문

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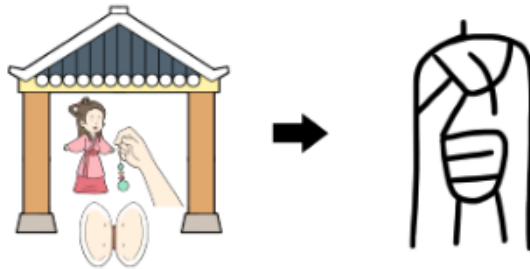
소전

復

해서

4(2)
-
82

회의문자①



府

마을[官廳] 부(:)

府자는 '곳집'이나 '마을',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府자는 广(집 엄)자와 付(줄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府자의 금문을 보면 여기에 貝(조개 패)자가 府 더해져 있었다. 府자는 본래 문서나 재물을 보관하던 '곳간'이나 '창고'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广자에 付자와 貝자가 결합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貝자가 생략되었고 대신 문서를 취급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관청'이나 '관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府

금문

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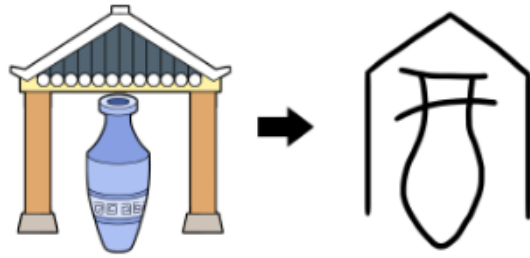
소전

府

해서

4(2)
-
83

회의문자①



富

부자 부:

富자는 '부유하다'나 '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富자는 宀(집 면)자와 畐(가득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畐자는 항아리에 술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畐자에 宀자를 결합한 富자는 집 안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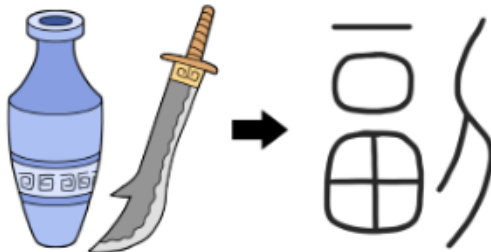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84

회의문자①



副

버금 부:

副자는 '버금가다'나 '둘째',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副자는 畐(가득할 복)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畐자는 항아리에 무언가가 가득히 차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副자는 이렇게 가득함을 뜻하는 畐자에 刀자를 결합해 가득한 것을 둘로 나누었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副자는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둘째'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참고로 副자에는 '쪼개다'나 '나누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이때는 '복'이라고 발음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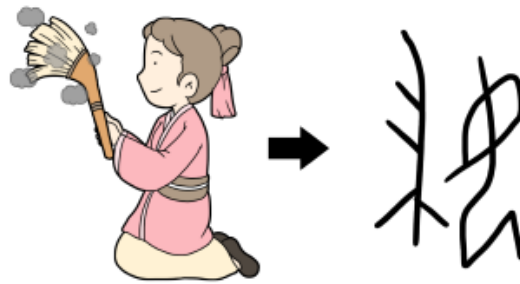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85

회의문자 ①



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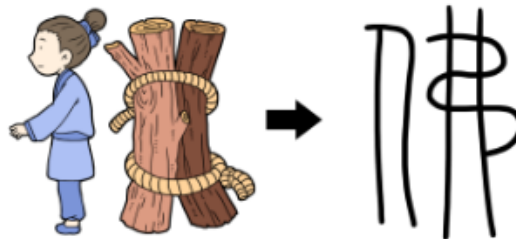
며느리
부

婦자는 '며느리'나 '아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婦자는 女(여자 여)자와 帚(비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帚자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帚자에 女자가 결합한 婦자는 집 안을 청소하는 여자를 표현한 것으로 '며느리'나 '아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시집온 여자들의 삶이 엿보이는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86

회의문자 ①



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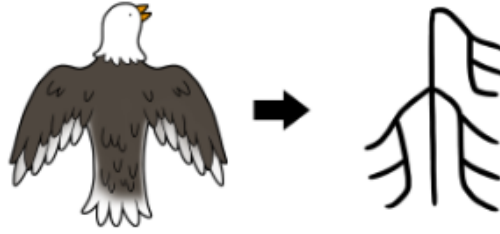
부처 불

佛자는 '부처'나 '불교'를 뜻하는 글자이다. 佛자는 人(사람 인)자와 弗(아닐 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弗자는 나뭇단을 끈으로 묶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나 '근심하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人자가 더해진 佛자는 본래 '어그러지다'라는 뜻을 표현했던 글자였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부터는 불교를 대표하는 글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이름인 붓다를 불타(佛陀)로 한자화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소전	해서

4(2)
-
87

상형문자①



飛

날 비

飛자는 '날다'나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飛자는 새의 날개와 몸통을 함께 그린 것이다. 飛자는 본래 '날다'를 뜻하기 위해 만들었던 非(아닐 비)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글자이다. 飛자는 새의 날개만을 그렸던 非자와는 달리 새의 몸통까지 표현하고 있다.

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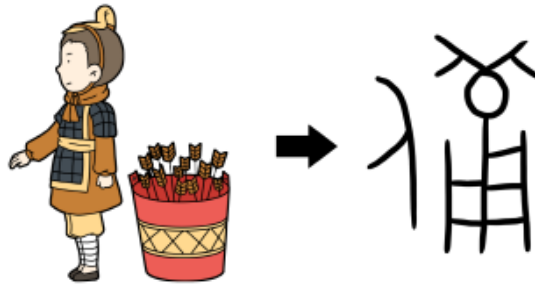
소전

飛

해서

4(2)
-
88

회의문자①



備

갖출 비:

備자는 '갖추다'나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備자는 人(사람 인)자와 用(쓸 용)자,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備자를 보면 화살집에 화살이 담겨있는 備(備)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화살집에 화살이 담겨있다는 것은 이미 전쟁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人자가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備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備

갑골문

備

금문

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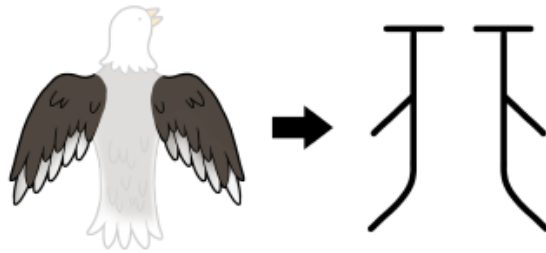
소전

備

해서

4(2)
-
89

상형문자 ①



非

아닐
비(:)

非자는 '아니다'나 '그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非자를 보면 새의 양 날개가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非자의 본래 의미는 '날다'였다. 하지만 후에 새의 날개가 서로 엇갈려 있는 모습에서 '등지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배반하다'나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飛(날 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非

갑골문

非

금문

非

소전

非

해서

4(2)
-
90

회의문자 ①



悲

슬플 비:

悲자는 '슬프다'나 '서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悲자는 心(마음 심)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非자는 새의 양쪽 날개를 그린 것으로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悲자는 이렇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마음(心)이 영 아니다(非)'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이 영 아니라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悲자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悲

소전

悲

해서